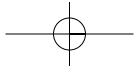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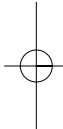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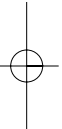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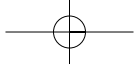




# 브라질의 농업과 무역 동향

해외농업 시리즈 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브라질의 농업과 무역 동향

## 1. 지형과 기후

브라질은 남아메리카 대륙에서 국토가 가장 넓은 국가로, 남미 대륙의 약 48%를 차지하고 있다. 프랑스령 기아나, 수리남, 가이아나,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및 우루과이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북부는 아마존 강이 흐르는 세계 최대의 열대 우림 지대이며, 남부에는 브라질 고원이 펼쳐져 있다.

브라질 지형은 고원지대, 저지대, 아마존 평원 등으로 구분된다. 고원지대는 해안선을 따라 발달된 산맥으로부터 내륙지방으로 뻗어 있고, 동남부인 미나스제라이스, 상파울루에 걸쳐있으며, 면적은 약 149km<sup>2</sup>, 고도는 대략 300~900m에 달하며, 짧은 산맥으로 둘러싸여 저지대, 낮은 산지, 평원 등으로 구성된다. 아마존 평원지대는 국토면적의 약 60%를 차지하는 아마존 분지로 광활한 평원을 이루며, 네그루 강(Rio Negro) 및 타파주스 강(Rio Tapajos) 등을 비롯한 지류를 갖고 있는 아마존 강이 아마존 중앙을 관통한다. 저지대는 국토의 약 30%이상으로 해발 200m 이하의 지대이다. 마투그로수주의 판타날(Pantanal)을 중심으로 파라과이 분지가 주곡이다.

국토의 대부분이 적도와 남회귀선 사이에 위치해 있어, 브라질 기후는 지역에 따라 열대, 아열대, 온대로 구분된다. 열대 지역은 아마존을 중심으로 연평균 25~27℃ 정도이고 강수량은 연간 3,000mm이다. 8월과 9월을 제외하고 연중 다우지역으로 고온 다습한 열대우림 지역이다. 아열대 지역은 중앙고원 및 남부고원의 일부지역을 포함하며 5~9월은 건기로 사바나 기후에 속하고 연평균 19~28℃이다. 온대지역은 남부고원의 대부분이 여기에 속하고 연평균 17~19℃이며 강수량은 연간 1,000~2,500mm 정도이다.

그림 1. 브라질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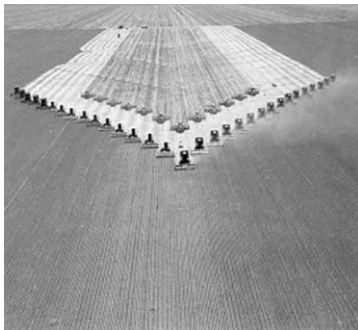
## 북부지역 (Norte)

아마조니아(Amazonia)로 알려져 있는 북부지역은 브라질 아마존분지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전 국토 면적의 45%를 차지하며, 총인구의 7%가 거주하고 있다. 아크레(Acre), 아마파(Amapa), 아마조나스(Amazonas), 파라(Para), 론도니아(Rondonia), 로라이마(Roraima), 토크탄(Tocantins)주가 북부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주로 열대 우림지역으로서 각종 야생 동물 및 희귀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석유 및 우라늄 등 광물자원을 비롯한 각종 천연자원이 미개발 상태로 매장되어 있다. 주요도시로 벨렘(Belem), 마나우스(Manaus)시 등이 있다.

## 북동부지역(Nordeste)

전 국토 면적의 13%, 총인구의 29%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란하우(Maranhao), 피아우이(Piaui), 세이라(Ceara), 리우그란데 도 노르테(Rio Grande do Norte), 페르남부쿠(Pernambuco), 알라고아스(Alagoas), 세르지페(Sergipe), 파라이라(Paraiba), 바이아(Bahia)주가 북동부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해안선을 따라 전개된 비옥한 토양지대와 세타오(Sertao)라는 반사막 평원의 내륙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탕수수 및 코코아 등 열대성 작물 재배에 적합한 열대기후이다. 살바도르(Salvador), 레시페(Recife), 포르탈레자(Fortaleza) 등의 대도시가 있다.

## 남동부지역(Sudeste)



전 국토 면적의 11%, 총인구의 42.5%로 구성되어 있으며, 에스피리토 산토(Espirito Santo), 미나스제라이스(Minas Gerais), 리우데자네이루(Rio de Janeiro)의 세 개주가 있다. 아열대성 기후 지역으로 농수산업, 광업, 공업 등이 고루 발달된 지역이며, 해안 지대의 풍부한 석유, 미나스 제라이스의 철광석을 비롯한 각종 광물자원과 대두, 옥수수, 커피, 쌀, 사탕수수, 양계 등의 농목축이 발달되어 있다. 주요 도시는 상파울루, 리우데자네이루, 벨로리존테(Belo Horizonte)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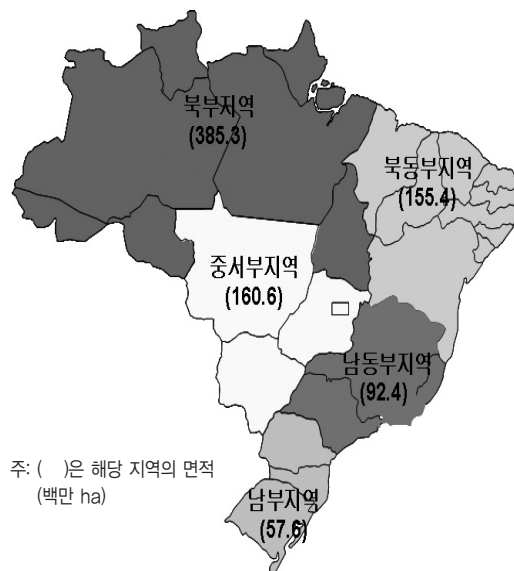
## 남부지역(Sul)

전 국토 면적의 7%, 총인구의 15%로 구성되어 있으며, 파라나(Parana), 산타카타리

나(Santa Catarina), 리오 그란데 도 술(Rio Grande do Sul) 세 개 주가 위치하고 있다. 해안산맥인 세라 도마(Serra do Mar)의 남쪽 끝부분을 형성하고 있는 내륙고원과 낮은 산이 이 지역의 특징이다. 최남단 리오 그란데 도 술에는 팜파(Pampa)라고 불리는 초원지대가 펼쳐져 있는데 이는 우루과이와 아르헨티나까지 이어져 있다. 온대성 기후 지역으로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계 이민자들이 주로 정착하였으며 테라로사(Terra Roxa)로 불리는 적색의 비옥한 토양과 파라나 강이 풍부한 수력발전자원에 힘입어 농수산 및 공업이 균형 있게 발달한 지역이다. 주도인 쿠리티바(Curitiba), 플로리아노폴리스(Florianopolis), 포르투알레그레(Porto Alegre)는 브라질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도시계획이나 환경보호, 경제개발 측면에서 국가적 모범이 되고 있다.

## 중서부지역(Centro-Oeste)

그림 2. 브라질 지역 구분



전 국토 면적의 19%, 총인구 7%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이아스(Goias), 마토 그로소 도 술(Mato Grosso do Sul), 마토 그로소(Mato Grosso) 연방자치구가 중서부지역에 속한다. 고온다습한 열대성 기후 지역으로 축산업, 농업, 광업 등이 발달하였으며, 세라도(Cerrado)로 알려져 있는 광활한 사바나지대는 한때 중서부 지역의 대부분을 덮었지만 기업농이 등장하면서 급속히 줄어들었다. 농업과 가축사육이 이 지역의 주요산업이

며 대도시로는 브라질리아, 캄푸 그란데(Campo Grande), 쿠이아바(Cuiaba)가 있다.

## 2. 경제와 농업 개황

### 경제동향

브라질은 세계 10위의 경제규모를 가진 국가로 2000~2002년 평균 구매력 평가 (PPP, Purchasing Power Parity) GDP가 1조 달러가 넘었다. 세계 5위의 인구규모(172 백만 명 이상)와 세계 5위의 국토 면적을 가지고 있다. 1인당 GDP는 7,600달러에 달한다(표1 참조). 그러나 소득 양극화가 심하고 빈곤율이 높아 하루에 1달러 이하로 살아가는 인구가 8.2%이고 2달러 이하로 생계를 유지하는 인구는 22.4%에 이른다 (2001년 기준, 표2 참조).

표 1. 브라질 소득과 인구: 국가간 비교, 2000~2002 평균

| 국 가 | GDP,PPP<br>(10억달러) | GDP,PPP<br>(%)* | GDP<br>(10억달러) | GDP<br>(%)* | 인구<br>(100만명) | 인구<br>(%)* | 1인당<br>GDP,PPP<br>(\$) |
|-----|--------------------|-----------------|----------------|-------------|---------------|------------|------------------------|
| 미 국 | 9,954              | 21.3            | 10,055         | 31.8        | 285           | 4.7        | 34,883                 |
| 중 국 | 5,378              | 11.5            | 1,174          | 3.7         | 1,272         | 20.8       | 4,230                  |
| 일 본 | 3,365              | 7.2             | 4,311          | 13.6        | 127           | 2.1        | 26,797                 |
| 인 도 | 2,633              | 5.6             | 482            | 1.5         | 1,032         | 16.9       | 2,550                  |
| 독 일 | 2,197              | 4.7             | 1,903          | 6.0         | 82            | 1.3        | 26,683                 |
| 프랑스 | 1,551              | 3.3             | 1,353          | 4.3         | 59            | 1.0        | 26,193                 |
| 영 국 | 1,504              | 3.2             | 1,478          | 4.7         | 59            | 1.0        | 25,463                 |
| 이태리 | 1,487              | 3.2             | 1,117          | 3.5         | 58            | 0.9        | 25,777                 |
| 브라질 | 1,310              | 2.8             | 521            | 1.7         | 172           | 2.8        | 7,600                  |

주: \*는 세계에서 해당국가의 GDP,PPP, GDP, 인구가 각각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자료: 2004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World Bank.

경제개혁 이후, 1991년에서 2001년 동안 1인당 실질 소득은 약 29% 증가하였고 빈곤율도 18% 감소하였다. 빈곤율 감소 현상은 도시뿐만 아니라 농촌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2001년 하루에 2달러 이하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구가 약 22%이고, 최상위 20% 소득비중이 63%, 최하위 20%의 소득 비중이 2.4%로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소득분배를 가진 국가이다(2001년 기준, 표 2참조). 다수의 빈민층이 도시에 거주하나, 빈곤율은 농촌지역에서 2배 이상 높다. 특히, 농촌 빈곤은 북동과 북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농촌지역의 최상위 빈곤층의 여건은 더욱 악화되어 농촌의 소득 불평등도는 심화되어 왔다.

표 2. 빈곤과 소득불평등: 국가간 지표 비교

| 국가   | 2001년 1일<br>1달러 이하로<br>생계를 유지하는<br>인구 비중(%) | 2001년 1일<br>2달러 이하로<br>생계를 유지하는<br>인구 비중(%) | 상위 20%의<br>소득 비중<br>(1995~2002) | 하위 20%의<br>소득 비중<br>(1995~2002) | 지니계수 <sup>1)</sup> |
|------|---------------------------------------------|---------------------------------------------|---------------------------------|---------------------------------|--------------------|
| 브라질  | 8.2                                         | 22.4                                        | 63.2                            | 2.4                             | 59                 |
| 중국   |                                             |                                             | 50.0                            | 4.7                             |                    |
| - 도시 | 26.5                                        | 71.0                                        | —                               | —                               | 36                 |
| - 농촌 | 0.3                                         | 6.5                                         | —                               | —                               | 33                 |
| 인도   |                                             |                                             | 41.6                            | 8.9                             |                    |
| - 도시 | 41.8                                        | 88.4                                        | —                               | —                               | 28                 |
| - 농촌 | 19.3                                        | 60.5                                        | —                               | —                               | 35                 |
| 남아공  | 10.7                                        | 34.1                                        | 66.5                            | 2.0                             | 58                 |
| 멕시코  | 9.9                                         | 26.3                                        | 59.1                            | 3.1                             | 55                 |
| 터키   | 1.2                                         | 12.8                                        | 46.7                            | 6.1                             | 40                 |

주: 1)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도를 측정하는 지수로 1과 100사이의 값을 가지며 100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가 심하다.

자료: 2004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World Bank.



## 농경지

브라질은 세계에서 중국, 호주, 미국 다음으로 넓은 농경지를 가지고 있다. 2002년 농경지는 264백만 ha이며, 이 중 약 75%가 목초지이다(표 3 참조). 아마존 밀림을 제외 하더라도 이용 가능한 중서부지역의 미개발 경작지가 약 90백만 ha로 추정된다.

브라질은 풍부한 천연 자원을 바탕으로 농산업을 발달시켰지만, GDP에서 농업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은 비슷한 농업자원을 가진 중국, 인도, 아르헨티나와 비교할 때 낮은 편이다. 2002년 농업 취업률은 약 21%로 비슷한 소득 수준을 가진 국가들과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편이다. 브라질의 농업노동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주원인은 영세한 영농구조 때문이다. 브라질 농가의 상위 20%가 생산의 80%를 담당하고 있는 반면, 40%의 소농과 준자급자족 농가가 생산의 4%를 차지하고 있다(OECD, 2005).

표 3. 토지 이용, 농업부가가치, 농업취업률, 2002

| 국가     | 총 면적<br>(백만 ha) | 농경지<br>(백만 ha) | 영구목초지<br>(백만 ha) | 경작면적<br>(백만 ha) | 농업<br>부가가치 <sup>1)</sup><br>(%) | 농업취업률 <sup>2)</sup><br>(%) |
|--------|-----------------|----------------|------------------|-----------------|---------------------------------|----------------------------|
| 브 라 질  | 851.5           | 263.6          | 197.0            | 59.0            | 8.8                             | 20.6                       |
| 중 국    | 959.8           | 554.0          | 400.0            | 142.6           | 15.4                            | 46.9                       |
| 인 도    | 328.7           | 181.2          | 11.1             | 161.7           | 22.7                            | 66.7                       |
| 남 아 공  | 121.9           | 99.6           | 83.9             | 14.8            | 3.8                             | 10.9                       |
| 아르헨티나  | 278.0           | 177.0          | 142.0            | 33.7            | 10.7                            | 0.4                        |
| 칠 레    | 75.7            | 15.2           | 12.9             | 2.0             | 8.8                             | 13.5                       |
| 호 주    | 774.1           | 447.0          | 398.4            | 48.3            | 3.8                             | 4.9                        |
| 뉴 질 랜드 | 27.1            | 17.2           | 13.9             | 1.5             | 7.0                             | 9.1                        |
| 미 국    | 962.9           | 411.9          | 233.8            | 176.0           | 1.6                             | 2.4                        |

주: 1)은 GDP에서 차지하는 농업부가가치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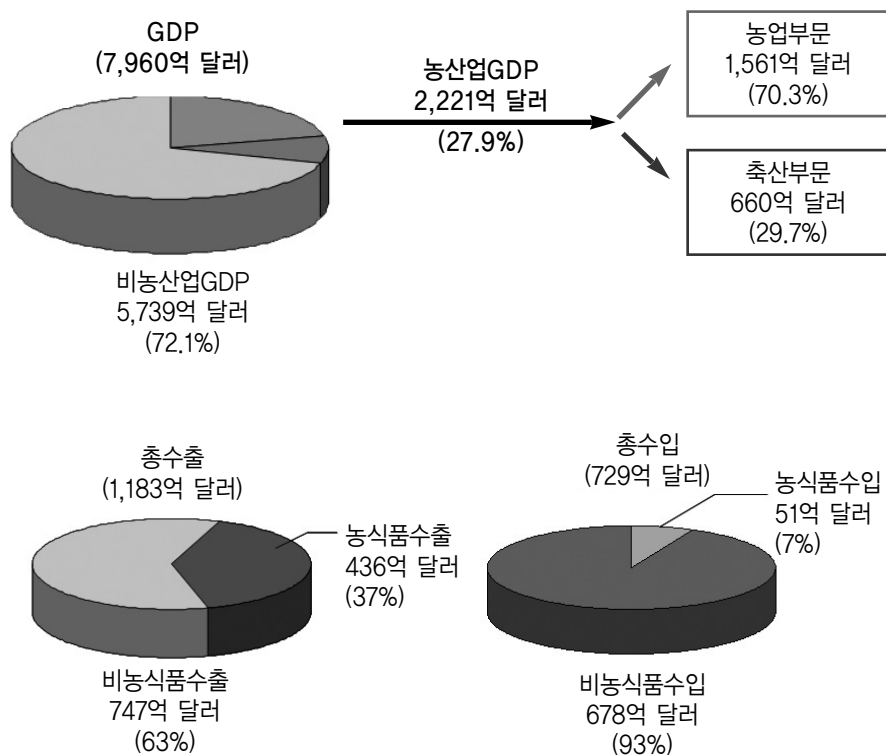
2)은 전체 취업에서 차지하는 농업취업 비중

자료: UN-FAO, FAOSTATS, 2004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World Bank.

## 농업의 위상

농산업을 브라질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2005년 농산업 GDP는 2,221억 달러로 전체 GDP의 약 28%를 차지한다. 이 중 농업은 70%, 축산업은 30%를 각각 차지한다. 2005년 농식품 수출은 전체 수출의 37%를 구성하고 있으며, 농식품 수입 비중은 전체 수입의 7%이다. 브라질에서 농산물 수출은 전체 무역수지 흑자의 80% 이상을 설명하고 있어, 브라질 농업은 국가 거시경제를 안정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 브라질 경제에서 농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2005년



자료: MAPA

### 3. 경제 개혁과 농업

#### 경제개혁의 추진

브라질 경제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수입대체산업화(Import Substitution Industrialization: ISI)<sup>1)</sup>의 보호무역 정책으로 빠르게 성장하였다. 브라질은 1964년 군사 혁명 이후 정치적 안정과 더불어 풍부한 노동력과 부존자원을 바탕으로 공업화를 적극 추진하여 중남미 제1의 공업국으로 발전하였다. 1945~1980년 동안 GDP는 연평균 7% 성장하였고, 특히 1970년대에는 정부의 고도경제성장 정책에 따라 제1차 석유파동 이후 세계 경기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7%가 넘는 경제성장을 지속하였다. 경제 성장으로 실질적 빈곤 수준은 감소하여 1970년대 68%에서 1980년 35%까지 빈곤율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의 무리한 고도 경제성장정책과 원유의 대외의존도 증대에 따른 인플레이션, 국제수지 적자 및 외채증가로 인한 원리금 상환 부담 가중 등으로 경제사정이 악화되어 1980년대에 들어서 연평균 1,000% 이상의 인플레이션을 기록하게 되었다. 높은 인플레이션과 재정악화로 해외 부채가 증가하였다. 외국투자 감소와 저축의 감소로 국내투자와 경제 성장은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수입대체산업화 정책으로 국내 생산 기반은 강화되었으나, 국제경쟁력은 약화되었다. 불안정한 경제상황에서 소득 불평등은 증가하여 지역 발전의 불균형이 심화되었다. 결국, 1982년 멕시코 부채 위기에 이어 1980년대 브라질과 라틴아메리카는 “잃어버린 10년(lost decade)”을 경험하였다.

1) 수입대체 산업화(Import Substitution Industrialization : ISI)는 강력한 국가개입과 보호주의 아래에서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오던 것들을 국내에서 대체하여 상품을 생산하려는 계획을 의미한다. 이것의 목표는 민족주의적 성격을 바탕으로 자립경제 달성을 이루는 것이다. 이런 정책은 주로 중남미에서 실시된 산업화정책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이후에 행해진 수출지향 산업화와 함께 중남미의 중요한 경제 발전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이후 경제 안정을 되찾기 위해 브라질은 1980년대 말부터 여섯 차례의 경제계획<sup>2)</sup>을 실시하며 급진적인 경제개혁을 단행하였다. 이러한 경제개혁을 통해 무역은 자유화되었고 정부 소유 기업은 민영화로 점차 전환되었다. 국내시장의 각종 규제는 완화되었고, 다른 남미국가와 MERCOSUR라는 관세동맹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전체 산업의 평균 관세는 1980년대 100% 이상에서 1994~1997기간 동안 13%로 감축되었다. 농업정책도 이러한 경제의 개방화와 사유화의 흐름에 큰 영향을 받았다.

1990년 콜로(Collor) 정부 이래 시작된 개방화 및 민영화 정책은 1992년 말 취임한 이타마르(Itamar) 정부아래에서도 계속 되었다. 특히, 마지막 경제계획이었던 1994년 ‘레알 플랜(Real Plan)(1994~1998)’<sup>3)</sup>으로 연 1,000~2,000%대의 초인플레이션을 해결하고 외채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1994년 화폐개혁을 단행하고 레알(브라질 화폐 단위)화를 달러화에 거의 1 : 1로 연동시켜 레알화의 변동을 밴드범위 내에 제한하는 고정환율제를 도입하였다. 카르도주 당시 재무부장관은 1994년 ‘레알 플랜’으로 2,700%까지 치솟았던 인플레이션을 두 자리 숫자로 끌어내리는 데 성공하여 연평균 가격 증가율이 1995년 500%에서 1997년 7%, 1998년에 3.5%까지 감소하게 되었다. 이 계획 하에서 세금수입 증가로 국가 재정이 강화되었고 해외 자본 유입률도 증가하게 되었다.

1995년 카르도주 대통령 취임, MERCOSUR의 출범과 WTO 체제 출범을 계기로 경제개혁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1998년 재선에 성공한 카르도주 대통령은 경제안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물가 안정화에 성공하였다. 인플레이션율이 한 자리 숫

2) 브라질의 주요 경제계획으로 쿠르자소 플랜(Cruzaso plan)(1986-87), 브레세르 플랜(Bresser plan)(1987-88), 베라오 플랜(Verao plan)(1989-90), 콜로 플랜(Collor plans I and II)(1990-91), 레알 플랜(Real Plan)(1993-98) 등이 있다.

3) 카르도주 당시 재무부장관은 94년 ‘레알 플랜’으로 2700%까지 치솟았던 인플레이션을 두자리 숫자로 끌어내리는 데 성공하여 ‘레알화의 아버지’란 칭송을 들으며 94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었다. 반면에 ‘레알 플랜’은 수출부진에 따른 무역수지 적자를 확대시켰다. 또한 브라질의 국내부채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1994년에 6백억 달러이던 국내부채가 1998년에는 무려 3천 5백억 달러에 달하였다. 1999년 1월 발생한 브라질의 외환위기는 결국 1994년 이후 초(超)인플레이 진정을 위해 지속해 오던 ‘레알플랜’의 주요 골격인 고정환율제 포기과 변동환율제(Floating System)의 도입으로 이어졌다.

자로 안정되었으나, 고평가 레알화 정책의 고수로 인한 대외경쟁력 약화 및 재정적자 심화로 1999년도에 외환위기에 봉착한데 이어, 2002년에는 결국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되었다.

브라질 최초의 좌파정부로 세계의 주목과 시장의 우려 속에 2003년 1월 룰라(Lula) 대통령이 취임하였다. 룰라 집권 1기 정부(2003~2006년)는 IMF 합의에 따른 긴축경제 기조 하에서 물가안정과 공공부채 축소를 경제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였다. 또한 지속적 경제성장 기반구축을 위한 우선적인 극복과제로 정부의 재정수지 균형 달성을 추진하였다. 이에 연금 및 세제개혁을 추진하고 수출산업 및 수입대체산업을 육성하였다. 만성적 경상수지 적자구조개선을 위해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수입대체산업을 육성하였다.

이러한 긴축과 안정, 개혁위주의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대외신뢰도가 향상되고 금융시장은 안정을 되찾았다. 경제는 다시 안정되어 정부예산은 흑자를 유지하였고, GDP대비 부채 비율은 비록 GDP의 50%이상으로 높았으나, 2003년 이후 감소 추세를 나타냈다. 브라질의 경상수지 흑자는 2004년에 확대되었고 2005년에도 1,180억 불을 기록하였다. 이는 2개년 동안 60% 증가한 공산품 수출의 빠른 성장 덕분에 흑자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상수지 흑자로 외채는 GDP의 42%에서 21%로 반감되었다.

그러나 룰라 정부의 강도 높은 고금리 정책과 긴축 재정정책의 추진 결과, 투자와 소비 성장 부진, 경제 침체의 지속으로 인한 실업률 증가, 농업 생산의 정체 현상 등이 나타났다. 경제안정의 토대를 구축했지만 경제성장은 정체되었다. 실제로 브라질 GDP 성장은 2004년에 4.9%에서 2005년 2.3%로 하락하였다. 여기서 농업정체는 시장여건의 악화와 주요 생산지역의 가뭄이 주원인이었다.

룰라 대통령은 집권기 1기 동안 빈곤퇴치와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강화하였다. 빈곤 퇴치사업(Zero Hunger Plan), 저소득층 가족 생계 수당 지급(Bolsa Familia) 등 사회구

호 정책의 추진을 통해 사회 전반의 빈곤이 상당히 줄어들었고, 최저 임금의 대폭적인 인상을 통해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생존권도 많이 향상되었다. 정부는 최저 임금을 2005년 5월 BRL 300에서 2006년 4월 BRL 350<sup>4)</sup>으로 높였고 브라질의 대표적인 사회구호정책인 ‘볼사 파밀리아(Bolsa Familia)’<sup>5)</sup>의 적용범위를 800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하였다. 이는 인구의 1/3가량이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2006년 10월 29일 룰라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하였다. 이로써 브라질은 룰라 대통령이 집권 1기에 구축한 경제 안정의 토대 위에 실업난 해소를 위한 고용창출 개혁정책을 마무리하는 등 경제를 안정적으로 성장시키는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 경제개혁의 영향

브라질 경제개혁이 농업에 미친 영향은 복잡하게 나타났다. 80년대 거시경제가 불안정하여 자산 가치가 하락하였고, 이에 따라 토지, 대가축 등의 가격이 하락하였다. 그러나 ‘Real Plan(1994-1998)’ 이후 토지가격은 절반수준에서 안정을 찾았다. 시장 규제 완화와 토지개혁으로 경쟁력 있는 생산자가 경지를 임차하는 절차가 완화된다고 정부의 토지개혁 비용은 감소하였다. 낮은 인플레이션으로 농업투자가 재기되었고 현대적인 기계 및 설비로 농업 생산성은 향상되었다.

개방화 정책으로 농업은 계속 성장하였다. 수출세 감축과 수출관련 규제 완화 등의 수출 증진 정책으로 농산물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다. 브라질 정부는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1997년 6월 일련의 수출진흥정책을 발표하였다. 정책의 주요 내용은 종전까지

4) 브라질 화폐단위는 레알(REAL)이고 국제적으로는 BRL이라고 표기한다. 1 BRL은 원화 370원 정도이다.

5) ‘볼사 파밀리아’는 기존의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을 하나로 통합한 프로그램으로 월 소득 100레알(약 45달러) 미만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매월 일정액의 생활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원된 돈은 수혜자가 식비나 자녀 교육비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03년 첫 해에 360만 가구에 34억 레알(약 16억 달러)이 지원된 것을 시작으로 2004년 650만 가구 57억 레알(약 27억 달러), 2005년 870만 가구 65억 레알(약 30억 달러)이 지원됐으며 2006년에는 1천110만 가구에 83억 레알(약 39억 달러) 정도가 지원된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

교역상대국에 비상 위험이 있을 경우, 자국 수출업자에게 적용하던 수출보증제도를 통상적인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안고 있는 수출업자에게도 확대 적용기로 하였다. 또한 브라질은행(Banco do Brasil)이 기존 무역업자에게만 제공해오던 특별 수출지원 금융을 수출품 관련 생산업자에게도 확대하였다. 이는 농업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수출 확대의 밑거름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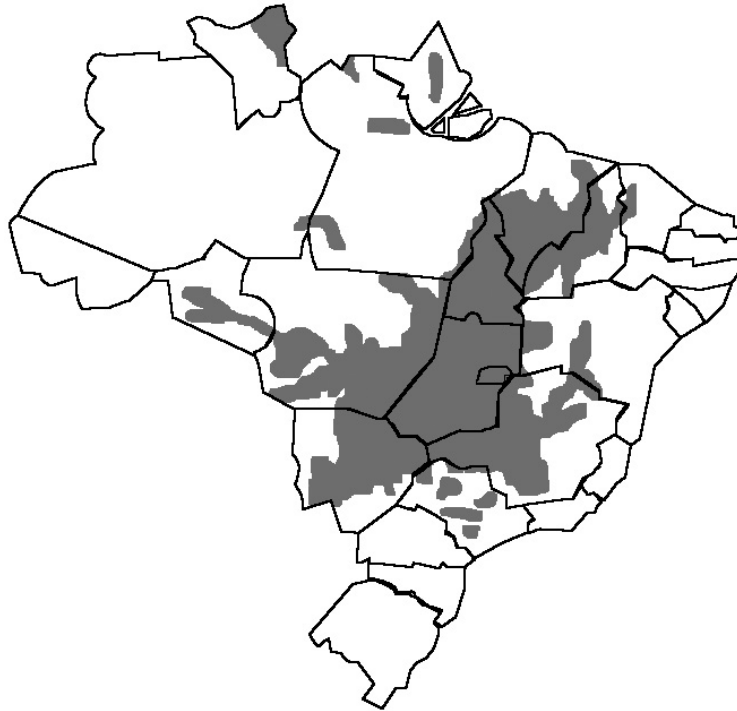
브라질 정부는 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세금기반을 넓히려고 노력해 왔으나, 브라질은 여전히 해외자본 의존도가 높아 해외경제 충격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수출은 브라질 경제 성장의 주요 원동력이며, 특히 농식품 수출은 그 경제 성장의 선두 위치에 있다.

## 4. 농업 생산 동향

### 농업지대

브라질 농업지대는 크게 두 지역으로 구분된다(그림 4 참조). 이 중 반온대 기후지역은 서부지역의 절반, 국토의 2/3를 차지한다. 이 지역은 높은 강수량, 비옥한 토양, 잘 정비된 기반시설, 높은 기술과 자본력으로 농업생산을 주도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 브라질 대부분의 곡물, 유지류, 수출작목이 생산된다. 다른 지역은 건조한 북동부 지역과 아마존 유역을 포함하는 북부지역으로, 토양은 비옥하나 강수량과 기술 및 자본이 부족하다. 이 지역에서는 대부분의 농민들이 자급자족 생산을 하나 산림과 열대 작목의 수출이 점차 중요하게 되었다. 중앙 브라질은 초지로 이루어진 지역이 대부분이다.

그림 4. 브라질의 농업지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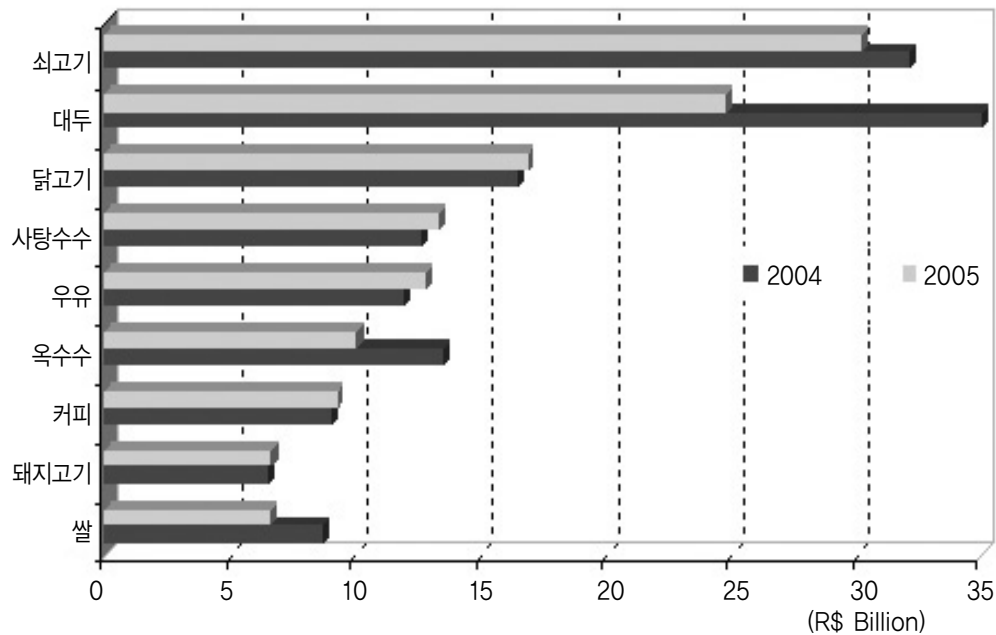
주: 지도의 어두운 부분이 주요 농업지대임.  
자료: MAPA

## 농업생산액

2005년 브라질 농축산물 생산액은 1,678억 레알이고 이중 농산물 생산액은 980억 레알로 58.4%, 축산물 생산액은 688억 레알로 41.6%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생산 품목은 쇠고기, 대두, 닭고기, 사탕수수, 우유, 옥수수, 커피 등이다. 2004년 대비 2005년에 생산액이 증가한 품목은 닭고기, 사탕수수, 우유, 커피, 돼지고기 등이 있다. 반면, 생산액이 감소한 품목은 대두, 쇠고기, 옥수수, 쌀 등이다(그림 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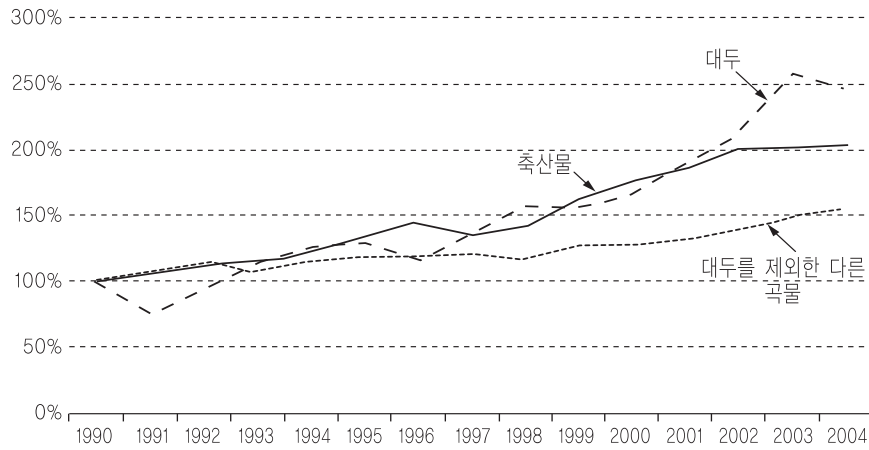
그림 5. 브라질 주요 농산물의 생산액 변화, 2004~2005



자료: MAPA

그림 6은 1990년부터 2004년까지의 농작물과 축산물의 산출물 지수(1990 = 100)를 나타낸다. 1990년 이후 무역자유화와 시장규제 완화로 국내농산물이 수입농산물로 대체되는 효과가 발생하였고 이에 1990년대 초에 일시적으로 농작물 생산이 감소하는 현상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는 결국 수출 농산물의 생산량 증가로 상쇄되었다. 1993년부터 생산 증대가 가속화되어 1999년 이후 급격히 상승하였다. 이러한 성장은 실질적으로 대두와 축산물의 산출 비중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그림 6. 농작물과 축산물의 산출물 지수, 1990~2004 (1990=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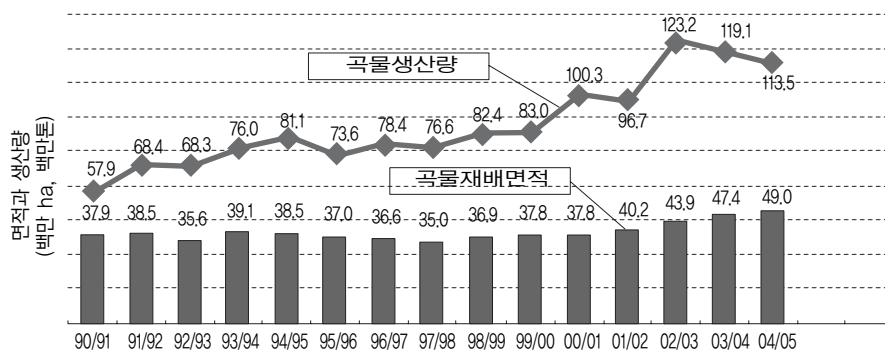


자료: OECD(2005)

## 곡물 생산

1990/01년 대비 2004/05년 곡물생산량 증가율은 96%(58백만 톤에서 114백만 톤)으로 재배면적 29%(38백만 ha에서 49백만 ha) 증가율의 3.3배 정도이다. 2004/05년 곡물 총 생산량은 114백만 톤이고, 재배면적은 49백만 ha이다(그림 7).

그림 7. 곡물 생산량과 재배면적 변화 추이, 1990~2004



주: 곡물은 면화, 땅콩, 쌀, 귀리, 호밀, 보리, 콩, 해바라기 씨, 옥수수, 대두, 밀, 수수, 피마자를 포함한다.  
자료: MAPA

표 4. 브라질 곡물 생산량 변화 추이

단위: 천톤

|        | 1990/91 | 1995/96 | 2000/01 | 2004/05 | 1990/01년 대비<br>2004/05년<br>변화율(%) |
|--------|---------|---------|---------|---------|-----------------------------------|
| 면화     | 1,357   | 762     | 1522    | 2,129   | 57                                |
| 땅콩     | 139     | 139     | 197     | 302     | 117                               |
| 쌀      | 9,997   | 10,038  | 10,386  | 13,227  | 32                                |
| 귀리     | 386     | 196     | 331     | 433     | 12                                |
| 호밀     | 8       | 8       | 9       | 3       | -55                               |
| 보리     | 209     | 225     | 283     | 387     | 85                                |
| 콩      | 2,808   | 3,039   | 2,592   | 3,044   | 8                                 |
| 해바라기 씨 | -       | -       | 56      | 63      | -                                 |
| 피마자    | 134     | 48      | 80      | 210     | 57                                |
| 옥수수    | 24,096  | 32,405  | 42,290  | 34,977  | 45                                |
| 대두     | 15,395  | 23,190  | 38,432  | 51,090  | 232                               |
| 수수     | 295     | 319     | 896     | 1,568   | 432                               |
| 밀      | 3,078   | 3,198   | 3,194   | 5,846   | 90                                |
| 전체     | 57,900  | 73,565  | 100,267 | 113,499 | 96                                |

자료: 2005 Brazilian Agribusiness, Brazil Foreign Trade Performance

1990/91~2004/05년 곡물별 생산량 및 재배면적 변화 추이는 표 4~표 5와 같다. 1990/01년 대비 2004/05년 곡물 생산량 변화율을 보면, 수수, 대두, 땅콩의 생산량은 100% 이상 증가하였다. 반면, 호밀은 55% 감소하였다. 1990/01년과 2004/05년 동안 면화, 쌀, 호밀, 콩, 옥수수의 경작 면적은 감소한 반면, 수수, 대두, 땅콩, 보리, 귀리, 밀의 경작면적은 증가하였다.

이러한 면적의 변화는 생산량 변화의 방향과 거의 일치하며, 재배면적보다 생산량 증가율이 더 높아 곡물의 생산성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90/01년 대비 2004/05년 재배면적 변화가 가장 큰 곡물류는 수수로 305% 증가하였다. 그 다음은 대두로 139% 재배면적이 증가하였다.

표 5. 브라질 곡물 재배면적 추이

단위 : 천 ha

| 곡물류    | 1990/91 | 1995/96 | 2000/01 | 2004/05 | 1990/01년 대비<br>2004/05년<br>변화율(%) |
|--------|---------|---------|---------|---------|-----------------------------------|
| 면화     | 1,939   | 953     | 868     | 1,179   | -39                               |
| 땅콩     | 87      | 81      | 102     | 130     | 48                                |
| 쌀      | 4,233   | 3,864   | 3,249   | 3,916   | -7                                |
| 귀리     | 254     | 147     | 249     | 326     | 29                                |
| 호밀     | 5       | 5       | 7       | 3       | -50                               |
| 보리     | 98      | 89      | 141     | 140     | 43                                |
| 콩      | 5,504   | 5,273   | 3,879   | 3,948   | -28                               |
| 해바라기 씨 | -       | -       | 37      | 44      | -                                 |
| 피마자    | 239     | 122     | 161     | 215     | -10                               |
| 옥수수    | 13,451  | 13,757  | 12,973  | 12,026  | -11                               |
| 대두     | 9,743   | 10,663  | 13,970  | 23,301  | 139                               |
| 수수     | 195     | 185     | 502     | 789     | 305                               |
| 밀      | 2,146   | 1,833   | 1,710   | 2,756   | 28                                |
| 전체     | 37,894  | 36,971  | 37,847  | 48,878  | 29                                |

자료: 2005 Brazilian Agribusiness, Brazil Foreign Trade Perform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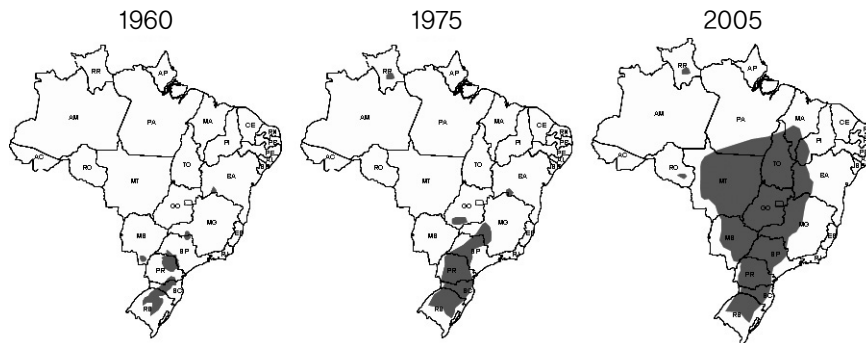
농산물 수출 증가로 주요 곡물 생산 지역이 남부와 남동부에서 중서부로 서서히 옮겨가고 있다. 중서부 지역 대두 경작면적은 1990~2000년에 96%, 2000~2003년에 66% 증가한 반면, 남/남동부 지역은 각각 10%와 40% 증가하였다. 대두 경작면적의 확대에 대두와 윤작을 할 수 있는 작물인 면화 등의 경작면적도 함께 증가되었다. 면화의 경우, 1990~2000년 중서부 면화 경작면적은 217%상승한 반면, 남/남동부 면화 경작면적은 82%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대두 경작 면적의 확대는 중서부 지역의 농업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표 6. 브라질의 지역별 곡물 재배면적 변화

|       | 재배면적(천ha) |         |         | 재배면적 변화        |            |                |            |
|-------|-----------|---------|---------|----------------|------------|----------------|------------|
|       | 1990/91   | 2000/01 | 2003/04 | 1990년과 2000년   |            | 2000년과 2003년   |            |
|       |           |         |         | 면적변화<br>(천 ha) | 변화율<br>(%) | 면적변화<br>(천 ha) | 변화율<br>(%) |
| 대 두   | 9,743     | 13,970  | 21,224  | 4,227          | 43.5       | 7,274          | 52.1       |
| 중 서 부 | 2,946     | 5,760   | 9,568   | 2,813          | 95.5       | 3,808          | 66.1       |
| 남/남동부 | 6,507     | 7,156   | 10,006  | 649            | 10.0       | 2,850          | 39.8       |
| 옥 수 수 | 12,652    | 10,546  | 9,457   | -2,106         | -16.6      | -1,089         | -10.3      |
| 중 서 부 | 1,519     | 1,206   | 758     | -313           | -20.6      | -448           | -37.2      |
| 남/남동부 | 8,000     | 6,482   | 5,573   | -1,518         | -19.0      | -909           | -14.0      |
| 콩     | 1,881     | 1,285   | 1,371   | -595           | -31.7      | 86             | 6.7        |
| 중 서 부 | 40        | 55      | 61      | 16             | 39.7       | 6              | 11.2       |
| 남/남동부 | 1,473     | 859     | 896     | -614           | -41.7      | 37             | 4.3        |
| 면 화   | 1,939     | 868     | 1,069   | -1,070         | -55.2      | 200            | 23.0       |
| 중 서 부 | 171       | 542     | 605     | 371            | 216.9      | 64             | 11.8       |
| 남/남동부 | 935       | 173     | 167     | -762           | -81.5      | -6             | -3.2       |
| 쌀     | 4,233     | 3,249   | 3,598   | -984           | -23.3      | 349            | 10.7       |
| 중 서 부 | 777       | 631     | 862     | -146           | -18.8      | 231            | 36.6       |
| 남/남동부 | 1,821     | 1,326   | 1,392   | -494           | -27.1      | 66             | 4.9        |
| 밀     | 2,146     | 1,710   | 2,727   | -436           | -20.3      | 1,017          | 59.5       |

자료: CONAB and MAPA

그림 8. 브라질의 대두 재배면적 확대



자료: MAPA

## 과일 생산

브라질은 세계 제3위의 과일 생산국으로 2004년 총 생산량은 40백만 톤, 재배면적은 2.2백만ha 정도이다. 2004년 오렌지 재배면적은 824천ha이고 생산량은 1,800만 톤으로 세계 오렌지 생산의 거의 1/3을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오렌지는 냉동과 농축 주스로 가공되어 유럽, 아시아, 미국 등에 수출된다. 브라질 오렌지 주스 산업은 세계 오렌지 수출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브라질은 또한 감귤, 레몬, 파파야, 멜론,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사과, 수박의 생산에 있어서 세계 주요 생산국 중 하나이다.

표 7. 2004년 브라질 과일 생산량 및 재배면적

|                    | 생산량(천 톤) | 재배면적(천 ha) |
|--------------------|----------|------------|
| 오렌지                | 18,314   | 824        |
| 바나나                | 6,584    | 495        |
| 코코넛                | 2,078    | 288        |
| 수박                 | 1,719    | 81         |
| 파파야                | 1,612    | 36         |
| 파인애플 <sup>1)</sup> | 1,477    | 59         |
| 포도                 | 1,291    | 72         |
| 감귤                 | 1,163    | 63         |
| 레몬                 | 986      | 49         |
| 사과                 | 980      | 33         |
| 망고                 | 950      | 73         |
| 구아바                | 408      | 19         |
| 멜론                 | 341      | 16         |
| 복숭아                | 236      | 24         |
| 아보카도               | 171      | 12         |
| 감귤                 | 162      | 8          |
| 무화과                | 27       | 3          |
| 배                  | 20       | 2          |

주 : 1) 단위는 천개

자료: 2005 Brazilian Agribusiness, Brazil Foreign Trade Performance

## 기타 작물 생산

2005년 브라질 사탕수수 생산량은 1995년 대비 100% 증가하였다. 중남부 지역이 사탕수수 생산의 86%, 북부와 북동지역이 14%를 생산하고 있다. 상파울루는 브라질 사탕수수의 61%를 생산하고 있다. 사탕수수의 90%가 설탕과 알코올 가공에 사용된다. 2004/05년 사탕수수 생산량은 3억 8천만 톤이었고 설탕 가공용은 2,663만 톤이었다. 브라질의 사탕수수 가공업은 지난 몇 년간 가장 높은 투자율과 성장률을 보였다. 이러한 성장의 원인은 국제 설탕 가격의 상승과 국내외 알코올 수요의 증가 때문이었다.

표 8. 브라질의 사탕수수와 설탕 생산량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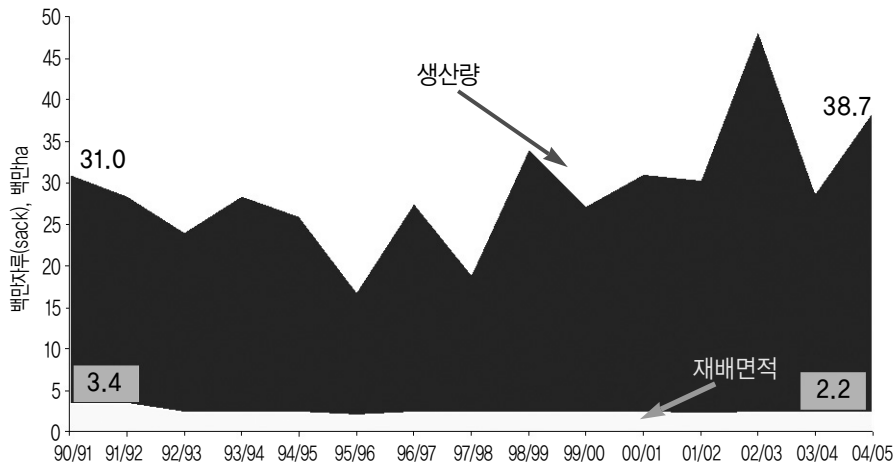
단위 : 천톤

|         | 사탕수수    | 설탕     |
|---------|---------|--------|
| 1995/96 | 249,877 | 12,651 |
| 1996/97 | 289,521 | 13,632 |
| 1997/98 | 302,199 | 14,847 |
| 1998/99 | 315,641 | 17,961 |
| 1999/00 | 310,123 | 19,380 |
| 2000/01 | 254,922 | 16,020 |
| 2001/02 | 292,329 | 18,994 |
| 2002/03 | 316,122 | 32,281 |
| 2003/04 | 357,111 | 24,944 |
| 2004/05 | 381,447 | 26,632 |

자료: 2005 Brazilian Agribusiness, Brazil Foreign Trade Performance

브라질은 세계 제 1위의 커피 생산국이자 수출국으로 세계 커피 생산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1990/91년 대비 2004/05년 커피 재배면적은 35% 감소하였으나, 생산량은 25% 증가하였다. 지난 몇 년간 고품질 커피에 대한 수요 증가로 커피 생산자들은 품종개량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그림 9. 브라질의 커피 생산량과 재배면적 변화



자료: USDA and AB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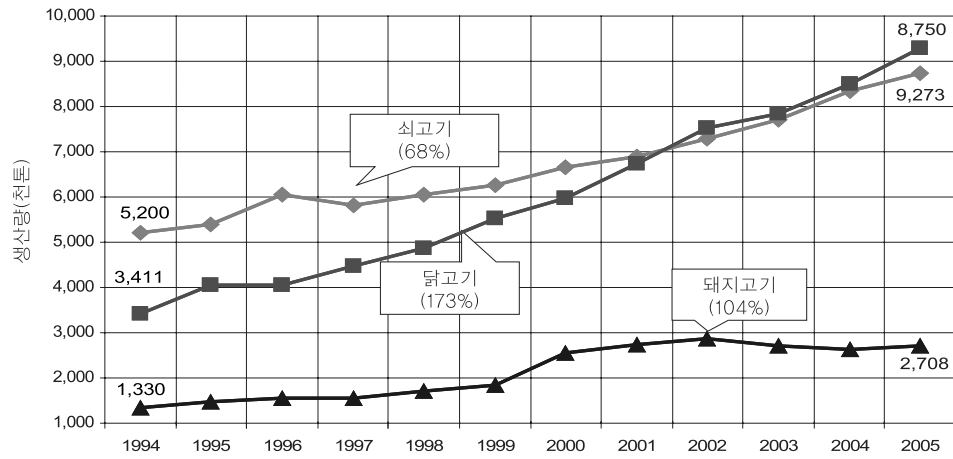
## 축산물 생산

1990년대 이후 브라질 농업의 두드러진 특징은 축산물 생산의 급격한 증가이다. 90년대의 환율 상승은 축산물 생산부문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축산물 수출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고 사료의 원료인 옥수수과 대두의 국내 비용이 하락하였으므로, 축산물 생산량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축종별 생산량을 살펴보면, 닭고기와 돼지고기 생산량이 1994년 대비 2005년 각각 173%와 104% 증가하였다. 쇠고기 생산량도 꾸준히 증가하여 68% 성장률을 나타내었다.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인 축종인 닭고기 생산량은 1994년에 비해 2005년 3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러한 축산물 생산의 증가는 국내외 수요의 증가에 기인한다. 또한 브라질 지역에서 구제역(foot and mouth disease)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반면, 유럽, 미국, 캐나다의 BSE 발생으로 유럽, 러시아, 중동 등으로 브라질 축산물의 수출이 확대되고 있다.



그림 10. 브라질 축산물 생산량 변화



주: ( )은 1994년 대비 2005년 생산량 변화율  
자료: CNA, ABEF and ABIEC

## 5. 농산물 무역 동향

### 주요 수출 농산물과 무역수지

브라질에는 열대우림, 아열대, 온대기후 등 다양한 기후가 있는데 주로 온대와 열대 농산물을 생산·수출하고 있다. 브라질은 세계 제일의 사탕수수, 오렌지 주스, 커피 생산국인 동시에 수출국이다. 2005년에 브라질 커피는 128개국에 수출되었고 수출액은 29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2005년 대두, 쇠고기, 담배, 알코올음료는 세계 제2의 생산국이며 세계 제1의 수출국이다. 닭고기, 옥수수, 돼지고기 등도 세계 3위 또는 4위의 수준으로 생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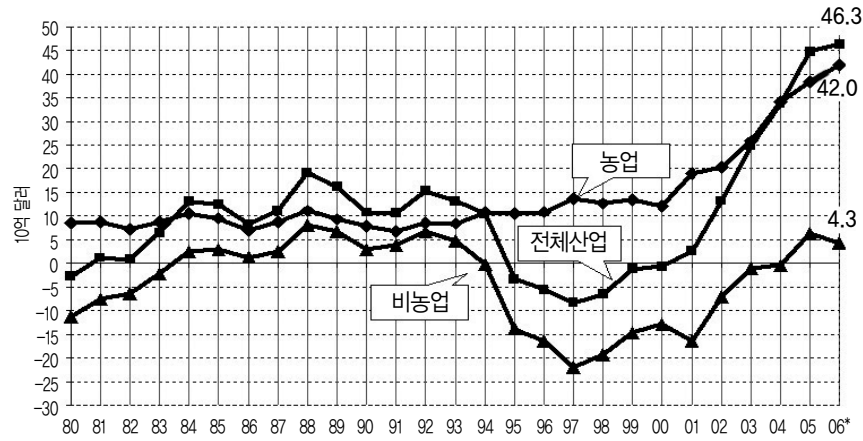
표 9. 2005년 브라질 농산물의 생산과 수출의 세계 순위

| 주요 농산물    | 세계 순위 |     |        |                 |
|-----------|-------|-----|--------|-----------------|
|           | 생 산   | 수 출 | 수출대상국수 | 수출액<br>(10억 달러) |
| 사탕수수      | 1위    | 1위  | 105    | 3.919           |
| 커피        | 1위    | 1위  | 128    | 2.929           |
| 오렌지 주스    | 1위    | 1위  | 77     | 1.110           |
| 대두 및 관련제품 | 2위    | 1위  | 87     | 9.474           |
| 쇠고기       | 2위    | 1위  | 147    | 3.060           |
| 담배        | 2위    | 1위  | 110    | 1.707           |
| 알코올음료     | 2위    | 1위  | 47     | 0.766           |
| 닭고기       | 3위    | 1위  | 143    | 3.509           |
| 신선과일      | 3위    | -   | 56     | 0.441           |
| 옥수수       | 3위    | -   | 22     | 0.102           |
| 돼지고기      | 4위    | 4위  | 76     | 1.165           |

자료: USDA, MAPA

경제개혁 이후 브라질 농산물의 수출 증가로 농업무역수지는 크게 개선되었다. 1994~2004년 동안 비농업 무역수지는 적자를 나타냈으나 같은 기간 동안 농산물 무역수지는 큰 흑자를 이루어 2000년부터 전체산업의 무역수지는 흑자가 되었다. 특히, 2000년 이후 급격히 증가한 농업무역수지 흑자로 브라질 무역수지는 큰 흑자를 기록하였다. 2005년 전체산업 무역수지 흑자는 463억 달러이고 이 중 농업무역수지 흑자는 420억 달러이므로 무역수지 흑자의 주원인이 농산물 수출 증가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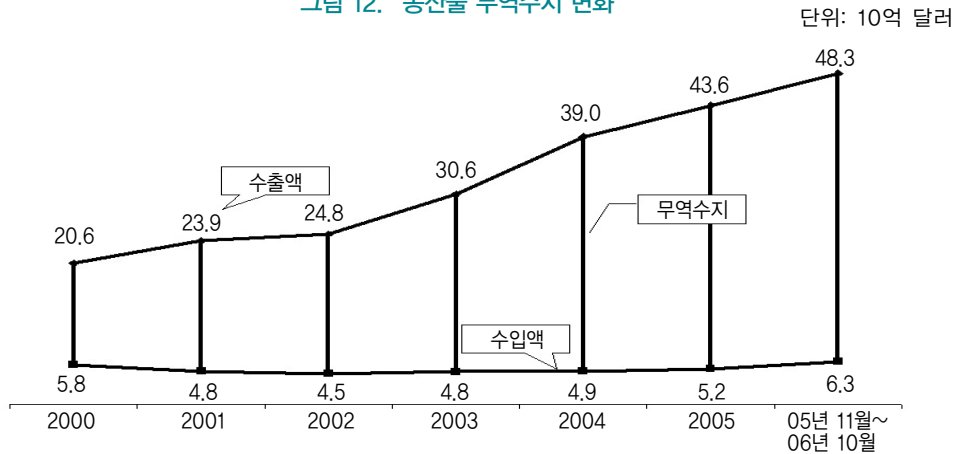
그림 11. 브라질 무역수지 변화



자료: MAPA

2000~2005년의 농산물 무역수지 변화를 살펴보면, 농업 수출액은 2000년 206억 달러에서 2005년에 436억 달러로 증가하여 2000년 대비 2005년 농업 수출액은 약 112% 증가하였다. 개혁 초기에는 농산물 수입이 증가하였으나, 1990년대 말부터 수출에 역전되었다. 2000~2005년 농산물 수입은 58억 달러에서 52억 달러로 10% 감소하였다.

그림 12. 농산물 무역수지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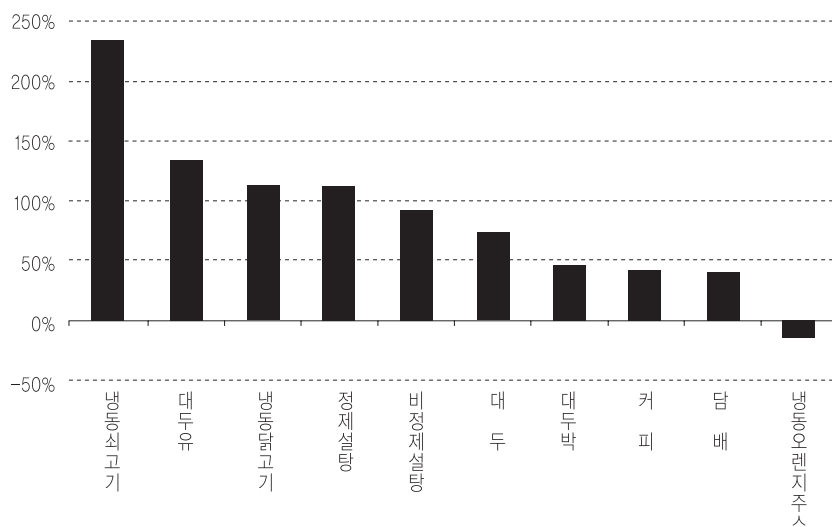
자료: MAPA

1990년대 말에 농산물 수출이 하락하였는데 이 시기는 아시아와 러시아의 금융위기 기간으로 세계시장이 침체된 원인에서 비롯되었다. 90년대 말 이후 브라질 농산물 수출은 증가세를 나타냈는데 특히, 2000년(206억 달러)과 2003년(306억 달러)에 급격히 상승하였다. 2000~2005년 농산물 수입 변화는 거의 없어 브라질의 농업 무역수지 흑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 수출 농산물

대두 및 대두박은 브라질 수출 성장의 주요 견인차 역할을 해왔으나 점차 그 성장률은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대두유 수출 증가세는 높게 유지되고 있다. 2000~2003년의 수출 농산물 패턴 변화를 보면, 쇠고기, 대두유, 닭고기, 사탕수수 가공품(설탕) 등의 수출액은 100% 이상 크게 증가한 반면, 냉동오렌지 주스의 수출액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커피 수출액은 같은 기간에 수출량은 감소하였으나 가격이 향상되어 48%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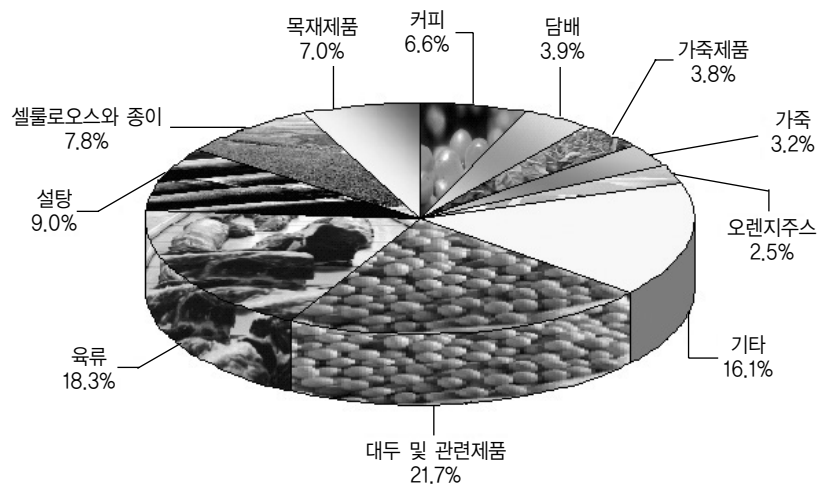
그림 13. 브라질 주요 농산물의 수출 변화, 2000~2003년



자료: OECD(2005)

브라질 농산물 수출은 소수 몇 개 품목에 집중되어 있다. 2005년 대두, 대두관련 제품, 사탕수수, 육류, 커피, 오렌지 주스, 담배 등의 신선 및 가공 농식품의 수출이 농산물 수출액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 수출 농산물 중 대두 및 대두관련 제품의 수출 비중이 21.7%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이 육류(18.3%), 설탕(9.0%), 커피(6.6%) 등이다. 대두의 경우, 비가공 대두의 수출량이 대두유와 대두박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은 원료농산물 수출에 부과되었던 상품유통세(ICMS) 감면, 가공 시설에 대한 낮은 투자, 그리고 1990년대 중반 이후 비탈각 콩에 대한 중국의 수요 급증 때문이다.

그림 14. 2005년 브라질 주요 수출 농산물 및 수출액 비중



자료: MAPA

최근 3년간 브라질의 축산물 수출은 2004년 6월과 2005년 10월에 발생한 구제역과 2006년 7월의 뉴캐슬 질병에 의한 영향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구제역의 경우, 마토 그로소 도 술(Mato Grosso do Sul)과 파라나(Parana) 주에서 발생하였고 58개 국가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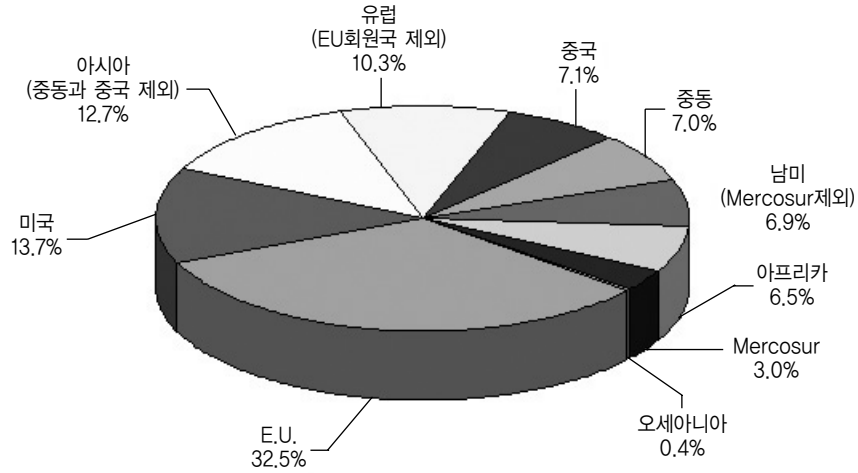
브라질 축산물에 대해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수입을 금지하였다. 뉴캐슬 질병의 경우, 리오 그란데 도 술(Rio Grande do Sul)에서 발생하였는데, 38개 국가들이 이 주로 부터 가금류 수입을 금지시켰다. 또한 2006년 3월에 EU는 잔여물(찌꺼기) 관리 부족의 이유로 브라질 꿀 수입을 금지하였다. 2005년에 EU는 브라질 꿀 수출의 80%를 차지하였다.

### 수출 대상국

2005년 브라질 농산물의 제 1위 수출국은 EU로 수출 비중의 32.5%를 차지하고 있다. 수출 비중 크기 순서대로 가장 중요한 수출 시장은 EU(32.5%), 미국(13.7%), 중국과 중동을 제외한 아시아(12.7%), 유럽(EU회원국 제외)(10.3%), 중국(7.1%), 중동(7.0%), 남미(6.9%), 아프리카(6.5%)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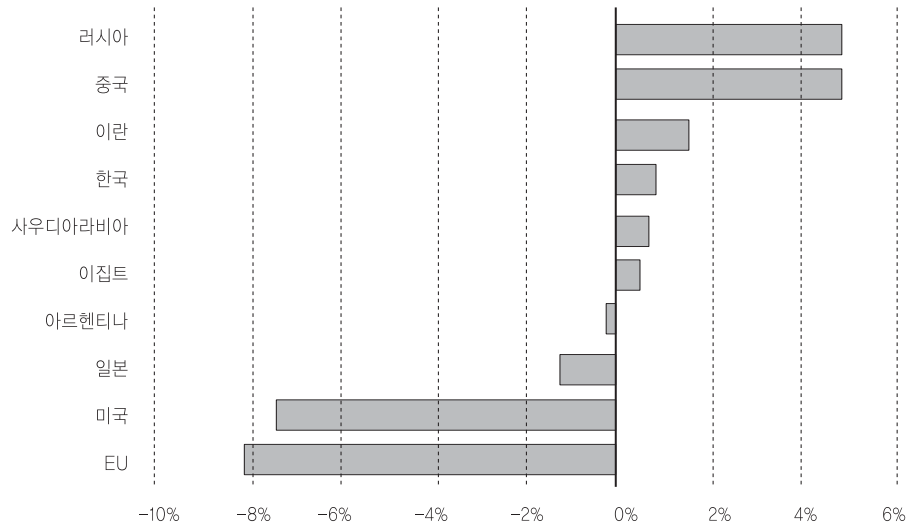
2000년 이후 브라질의 10대 수출 대상국에 대한 수출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EU, 미국, 일본의 수출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반면, 중국, 러시아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으로의 수출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이 밖에 수출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국가들은 이란, 한국,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등이다. 아르헨티나는 2000년 이전까지 주요한 수출 국가였으나 2000년과 2002년 동안 수출 대상국 5위에서 13위로 하락하였다. 이러한 감소 추세는 일시적이어서 2003년 이후 수출세는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다. 브라질 농산물 수출의 특징은 EU에 대한 브라질의 수출 의존도가 감소하고 있고 오히려 저개발 국가나 성장 잠재력이 큰 국가들에 대한 수출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림 15. 2005년 브라질 농산물의 주요 수출국



자료: MAPA

그림 16. 브라질의 10대 수출대상국의 수출비중의 변화, 2000~2003년



자료: OECD(2005)

농산물 무역은 브라질의 거시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고 외화 수입의 주요 원천이다. 최근 농산물 수출이 증가 추세이나, 농산물 생산의 대부분은 국내

시장에서 소비된다. 농산물 수출은 2004년 농산물 생산의 31%를 차지하고 있어 주요 농산물 수출국가인 캐나다 41%와 호주 74%의 비중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한편, 국내 생산량 대비 수출 비중은 브라질처럼 국내 소비량이 높은 미국(22%)보다는 높은 편이다. 브라질은 대부분의 품목을 자급자족하고 있으므로 수입량은 국내 소비량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다(5%이내).

최근 농산물 수출 성장의 가속화는 1999년 평가절하에 의해 나타나는 일시적인 효과일 수도 있다. 장기적으로 이러한 성장률이 지속될 것인가는 의문이다. 경작면적 확대에 의한 환경훼손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또한 취약한 하부구조 때문에 목초지가 농작물 생산용으로 개발되기에는 단기간에 힘들 것으로 보인다.

## 수입 농산물

농산물수입은 현재 브라질 총 수입의 7%를 차지하고 있다. 브라질은 대부분의 농식품을 자급자족하거나 최소한의 수입에 의존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밀은 국내 수요의 절반 이상을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고, 그 수입비중은 경제개혁 이후에 증가하였다.

표 10. 주요 농산물의 국내소비에서 수입량이 차지하는 비중

단위 : %

|      | 1990~1992 평균 | 1995~1997 평균 | 2002~2004 평균 |
|------|--------------|--------------|--------------|
| 밀    | 55.0         | 68.7         | 55.5         |
| 옥수수  | 2.7          | 2.1          | 1.2          |
| 쌀    | 1.6          | 6.2          | 7.8          |
| 콩    | 3.4          | 5.1          | 3.0          |
| 설탕   | 0.7          | 0.3          | 0.0          |
| 우유   | 0.0          | 0.5          | 0.0          |
| 쇠고기  | 3.9          | 4.4          | 1.2          |
| 돼지고기 | 0.9          | 0.4          | 0.0          |
| 닭고기  | 0.0          | 0.0          | 0.0          |
| 계란   | 0.3          | 0.2          | 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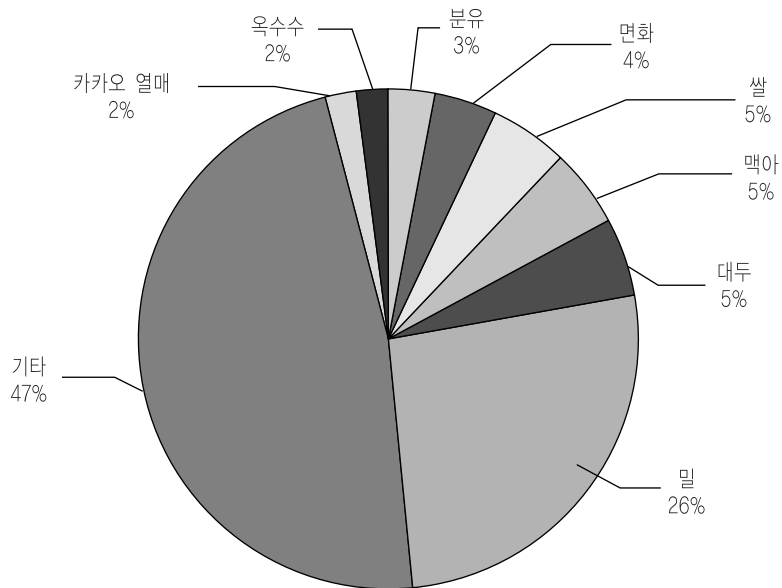
자료: OECD(2005).



2001~2003년 밀은 브라질 농업 수입의 26%를 차지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브라질은 연간 7백만 톤을 수입하여 이탈리아 다음으로 세계 제2의 밀 수입국이다.

다른 주요 수입 농산물은 대두, 맥아, 쌀, 면화, 분유이다. 밀과 함께 이러한 농산물은 브라질 농식품 수입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브라질이 대두를 수입하는 이유는 분쇄기(crushers) 시설이 파라과이 국경 지역들에 집중되어 있어 국내 내륙에서 이 지역까지 대두를 운송하는 것보다 파라과이로부터 대두를 수입하는 것이 더 저렴하기 때문이다.

그림 17. 브라질의 농식품 수입 비중, 2001~2003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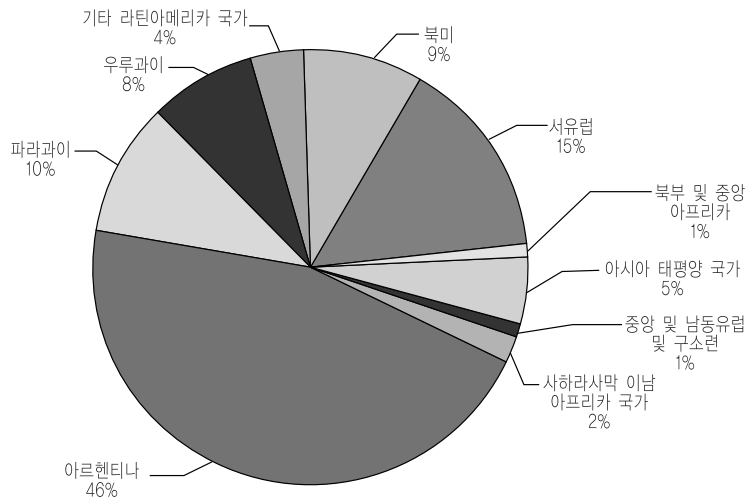


자료: OECD(2005).

## 수입대상국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 해 지역으로부터의 수입은 브라질 농식품 수입의 2/3을 차지하고 있고, 주요 수입국은 MERCOSUR 3개국 즉,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이다.

그림 18. 브라질의 농식품 주요 수입국, 2001~2003년 평균



자료: OECD(2005).

수입 대상국별 주요 수입 품목은 아르헨티나의 밀(밀 수입량의 80% 이상), 파라과이의 대두(대두 수입량의 전량 수입),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의 옥수수(옥수수 수입량의 99%),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의 맥아(맥아 수입량의 50% 이상) 등이다. EU와 미국도 브라질 농식품 수입의 각각 14%와 8%를 차지하고 있는 주요 국가이다. EU는 맥아와 밀가루의 주요 수출 국가이고 미국은 쌀과 면화의 주요 수출 국가이다. 5개 국가들이 브라질 농식품 수입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브라질의 농산물 수입은 수출보다 특정국가에 더 편중되어 있다.

## 6. 한-브라질의 농산물 무역 현황

### 농산물 무역현황

2005년 우리나라 전체 농산물 수입과 수출에서 브라질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9%와 0.1%로 다른 국가의 교역규모와 비교하여 낮은 편이나, 최근 들어 양국 간 교역규모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05년 기준으로 한국의 전체 수출액에서 브라질로 수출하는 농축산물 비중은 0.1%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한국의 전체 수입액에서 브라질에서 수입하는 농축산물 비중은 22.9%이다. 브라질 수입의 1/4정도가 농축산물이며, 그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표 11. 한국의 대브라질 교역현황

단위 : 백만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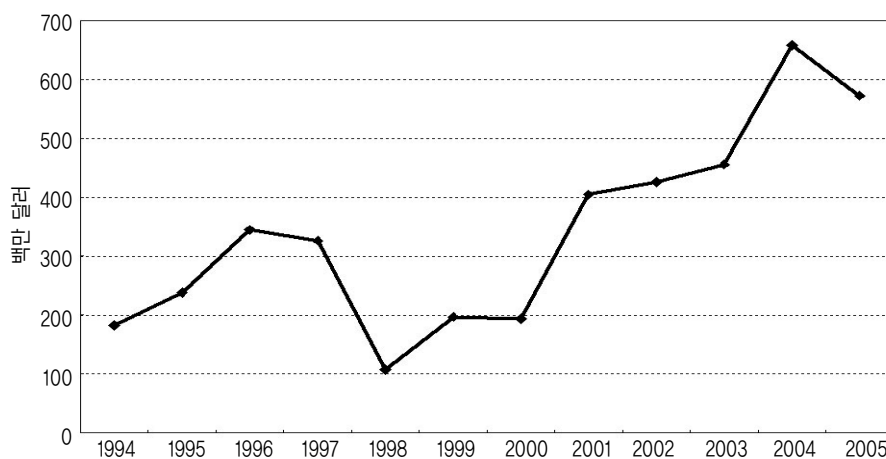
| 구 분  | 품 명  | 1994          | 1998          | 2002          | 2004          | 2005          | 1994~2005<br>변화율(%) |
|------|------|---------------|---------------|---------------|---------------|---------------|---------------------|
| 수 출  | 전 체  | 844           | 1,792         | 1,247         | 1,785         | 2,411         | 186                 |
|      | 농축산물 | 1.4<br>(0.2)  | 7.3<br>(0.4)  | 1.1<br>(0.1)  | 1.6<br>(0.1)  | 2.9<br>(0.1)  | 107<br>—            |
|      | 농산물  | 1.4           | 7.3           | 1.1           | 1.4           | 2.3           | 64                  |
|      | 축산물  | 0             | 0             | 0             | 0.3           | 0.6           | —                   |
|      |      |               |               |               |               |               |                     |
| 수 입  | 전 체  | 1,019         | 693           | 1,248         | 2,195         | 2,501         | 145                 |
|      | 농축산물 | 183<br>(17.9) | 108<br>(15.5) | 426<br>(34.1) | 658<br>(30.0) | 573<br>(22.9) | 214<br>—            |
|      | 농산물  | 177           | 103           | 418           | 650           | 553           | 212                 |
|      | 축산물  | 5.5           | 4.8           | 8.5           | 7.8           | 20.0          | 264                 |
|      |      |               |               |               |               |               |                     |
| 무역수지 | 전 체  | -175          | 1,099         | -1            | -410          | -90           | 49                  |
|      | 농축산물 | -181          | -100          | -425          | -656          | -570          | -214                |
|      | 농산물  | -176          | -96           | -416          | -649          | -550          | -213                |
|      | 축산물  | -6            | -5            | -9            | -8            | -19           | -253                |
|      |      |               |               |               |               |               |                     |

주: ( )은 전체 수출 및 수입에서 농축산물 수출 및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농산물유통공사(www.kati.net)

1994~2005년 동안 한국과 브라질의 전체 교역액은 1998년을 제외하고 한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의 대브라질 전체 수출은 1994년 844백만 달러에서 2005년 2,411백만 달러로 186% 증가하였고, 한국의 대브라질 전체 수입은 1994년 1,019백만 달러에서 2005년 2,501백만 달러로 145% 성장하였다. 무역수지는 1994년 175백만 달러에서 2005년 90백만 달러로 49%의 흑자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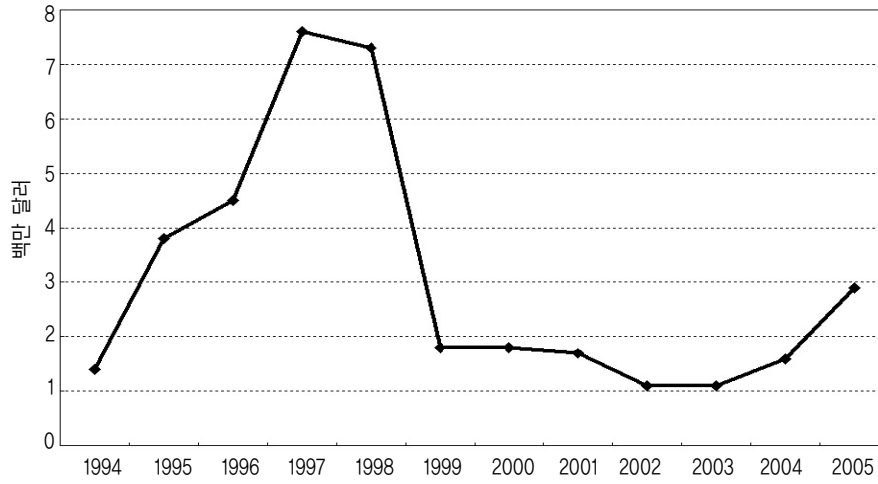
한국과 브라질의 농축산물 교역규모는 한국이 브라질로 수출하는 농축산물보다 수입하는 액수가 훨씬 높아 무역수지 적자를 나타내며, 그 적자폭은 1998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대브라질 농축산물 수출은 1994년 140만 달러에서 2005년 290만 달러로 107% 증가하였다. 반면 한국의 대브라질 수입은 1994년 1억 8,300만 달러에서 2005년 5억 7,300만 달러로 214% 증가하였다. 따라서 한국의 대브라질 농산물 무역수지 적자는 1994년 1억 8,100만 달러에서 2005년 5억 7,000만 달러로 214% 증가하였다. 한국의 대브라질 농축산물 교역에서 축산물의 수출비중은 매우 미미하나, 수입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브라질 축산물 수입은 1994년 550만 달러에서 2005년 2,000만 달러로 약 264% 성장하였다.

그림 19. 한국의 대브라질 농축산물 수입액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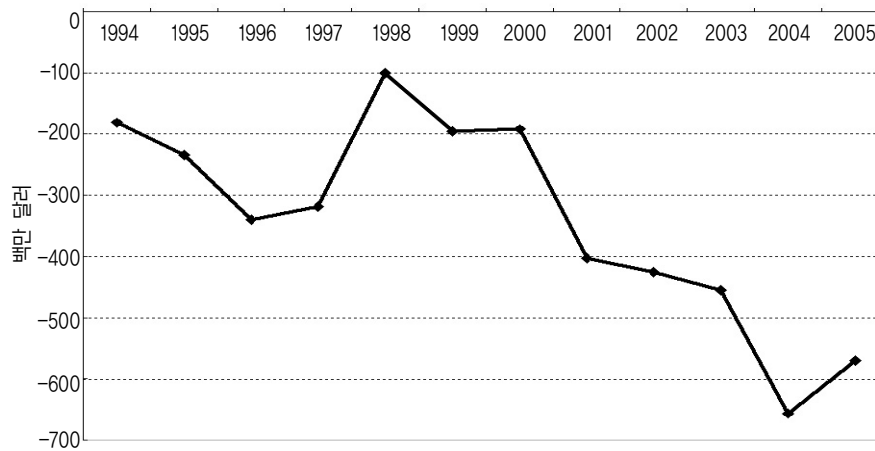
자료 : 농산물유통공사(www.kati.net)

그림 20. 한국의 대브라질 농축산물 수출액 변화 추이



자료 : 농산물유통공사(www.kati.net)

그림 21. 한국의 대브라질 농축산물 무역수지 변화 추이



자료 : 농산물유통공사(www.kati.net)

## 농산물 교역 실적

HS 품목코드로 한국과 브라질간의 주요 농산물 교역 실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2>는 2003~2005년 한국의 대브라질 주요 농산물 수출현황을 나타낸다. 3개년

평균 수출실적이 만 달러 이상인 농산물은 기타 사료용 조제품, 기타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점질물과 디크너, 라면, 조제식료품, 기타 베이커리 제품, 혼합조미료 등이다.

〈표 13〉는 2003~2005년 한국의 대브라질 주요 농산물 수입현황을 나타낸다. 3개년 평균 수입실적이 백만 달러 이상인 농산물은 대두유 추출시 얻는 오일케이크와 유박(1억 9천만 달러), 기타 옥수수(종자용, 사료용 제외)(1억 2천만 달러), 채유 및 탈지 대두박용(9,476만 달러), 냉동한 것, 조주정, 황색종 잎담배(주맥제거), 사료용 옥수수, 커피(볶지 않았으며 카페인 제거하지 않은 것) 등이다. 천만 달러 이하 백만 달러 이상의 수입 실적이 있는 품목은 우황, 대두유(조유), 인스턴트커피, 면실유(정제유), 정제 대두유, 신선치즈, 버어리종 잎담배 등이 있다.

표 12. 한국의 대브라질 주요 농산물 수출현황  
(2003~2005년 평균 10,000 달러 이상의 수출실적이 있는 농산물)

단위 : 천 달러

| 품목코드       | 품목명                                | 2003 | 2004 | 2005 | 2003~2005<br>평균 |
|------------|------------------------------------|------|------|------|-----------------|
| 2309909000 | 기타 사료용 조제품                         | 0    | 334  | 642  | 325             |
| 1302390000 | 기타 식물성원료에서 얻은<br>점질물과 디크너          | 136  | 191  | 342  | 223             |
| 1902301010 | 라면                                 | 212  | 193  | 265  | 203             |
| 1904109000 | 기타 곡물, 곡물산품을 팽창 또는<br>볶아서 얻은 조제식료품 | 81   | 93   | 122  | 99              |
| 1905901090 | 기타 베이커리 제품                         | 69   | 40   | 141  | 83              |
| 2106903011 | 인삼차(백삼차)                           | 55   | 42   | 85   | 61              |
| 2101129010 | 밀크, 크림 또는 대용물을 함유한 것               | 0    | 36   | 128  | 55              |
| 2309903090 | 기타 사료첨가제                           | 160  | 0    | 1    | 54              |
| 2103909090 | 기타 소오스, 소오스제조용 조제품                 | 0    | 58   | 63   | 40              |
| 2103909030 | 혼합조리료                              | 38   | 53   | 5    | 32              |
| 2202902000 | 과즙음료                               | 20   | 24   | 39   | 28              |
| 2106909010 | 커피크리머                              | 6    | 28   | 30   | 21              |
| 2106909099 | 기타(로얄제리, 벌꿀조제품을<br>제외한 것)          | 6    | 27   | 7    | 13              |
| 2208904000 | 소주                                 | 8    | 20   | 10   | 13              |
| 1902191000 | 국수                                 | 1    | 31   | 2    | 11              |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표 13. 한국의 대브라질 주요 농산물 수입현황  
(2003~2005년 평균 30만 달러 이상의 수입실적이 있는 농산물)

단위 : 천 달러

| 품목코드       | 품목명                                                | 2003    | 2004    | 2005    | 2003~2005<br>평균 |
|------------|----------------------------------------------------|---------|---------|---------|-----------------|
| 2304000000 | 대두유 추출시 얻는<br>오일케이크와 유박                            | 179,797 | 160,842 | 224,946 | 188,528         |
| 1005909000 | 기타 옥수수(종자용,<br>사료용 제외)                             | 96,113  | 227,828 | 46,006  | 123,316         |
| 1201001000 | 채유 및 탈지대두박용<br>(대두, 파쇄여부 불문)                       | 62,232  | 91,627  | 130,412 | 94,757          |
| 2009110000 | 냉동한 것                                              | 39,552  | 33,632  | 30,386  | 34,523          |
| 2207101000 | 조주정(알코올분이<br>80도 이상)                               | 19,400  | 37,104  | 36,972  | 31,159          |
| 2401201000 | 황색종 잎담배(주맥제거)                                      | 27,992  | 18,931  | 11,605  | 19,509          |
| 0901110000 | 커피(볶지 않았으며,<br>카페인 제거하지 않은 것)                      | 9,322   | 13,809  | 23,876  | 15,669          |
| 1005901000 | 사료용 옥수수                                            | 0       | 36,722  | 526     | 12,416          |
| 0510004000 | 우황                                                 | 3,733   | 4,511   | 7,631   | 5,292           |
| 1507100000 | 대두유(조유)                                            | 268     | 5,026   | 9,588   | 4,961           |
| 2101121000 | 인스턴트커피                                             | 1,712   | 3,784   | 5,220   | 3,572           |
| 1512291000 | 면실유(정제유)                                           | 1,938   | 4,463   | 3,994   | 3,465           |
| 2207109010 | 주류제조용 발효주정                                         | 2,011   | 3,098   | 4,339   | 3,149           |
| 0406101000 | 신선한 치즈(유장치즈 포함,<br>발효하지 않은 것)                      | 0       | 2,107   | 6,899   | 3,002           |
| 2101110000 | 엑스. 에센스와 농축물                                       | 2,074   | 1,758   | 1,524   | 1,785           |
| 1507901000 | 정제 대두유                                             | 2,459   | 322     | 1,387   | 1,389           |
| 2401202000 | 버어리종 잎담배(주맥제거)                                     | 147     | 1,601   | 1,350   | 1,033           |
| 2009669000 | 포도주스 중에서 브리스<br>값이 30을 초과하는 것                      | 540     | 1,098   | 1,080   | 906             |
| 1704902020 | 캐러멜                                                | 791     | 649     | 765     | 735             |
| 1302199099 | 기타(식물성 액즙과 엑스)                                     | 742     | 819     | 446     | 669             |
| 1806901000 | 초콜릿, 초콜릿과재(용기<br>에 들거나 포장된 것, 액<br>상, 분상, 입상, 벌크상) | 606     | 748     | 544     | 633             |
| 0901220000 | 커피(볶았으며,<br>카페인을 제거한 것)                            | 0       | 1,054   | 121     | 392             |
| 2309903010 | 향생물질을 주로 사용한<br>사료첨가제                              | 294     | 375     | 336     | 335             |
| 2309100000 | 개, 고양이용 사료<br>(소매용에 한함)                            | 119     | 390     | 445     | 318             |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시사점

향후 한·브라질 농산물 교역관계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한국과 MERCOSUR의 FTA체결에 의해 크게 좌우될 것이다. 남미공동시장(MERCOSUR)은 1991년 아순시온 조약에 의해 자유무역지대로 설립되어 1995년 관세동맹으로 공식 출범한 중남미 최대 경제공동체이다. 대외 공동 관세제도를 채택하여 관세동맹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일정기간 예외품목 규정을 두고 있어 자유무역지역과 관세동맹의 중간단계인 ‘불완전한 관세동맹’ 단계로 전체 품목의 90%에 대한 무관세 자유무역을 시행하고 있다. 회원국은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 4개국이며 칠레와 볼리비아, 페루 외에도 최근 멕시코와 베네수엘라가 준회원국으로 참가하고 있다. 회원국 중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GDP가 전체의 97%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등 양국이 MERCOSUR를 주도하고 있다. 현재까지 브라질은 우리나라와 농산물 교역 비중도가 상대적으로 낮을뿐더러 전반적인 관심도 낮은 실정이었다. 그러나 브라질의 농산물 수출 규모와 수출국 다변화 노력을 감안할 때 양국의 잠재적 교역가능성은 클 것으로 보인다. 브라질은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농산물 생산 및 수출국으로서 한-MERCOSUR FTA 체결 시 우리 농업과 농촌에 피해가 예상된다. 특히, 예상 민감 품목은 대두, 오렌지, 사과,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꿀 등으로 볼 수 있다.



## 참고문헌

UN-FAO, FAOSTATS([www.fao.org](http://www.fao.org))

World Bank, 2004,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OECD, 2005, Review of Agricultural Policies in Brazil, AGE/CA(2005)3.

Department of Agribusiness International Promotion, 2005, Brazilian  
Agribusiness-Brazil Foreign Trade Performance.

농산물유통공사, 〈[www.kati.net](http://www.kati.net)〉.

외교통상부, 2006, 남미 10개국 자원현황.

한국무역협회, 〈[www.kati.net](http://www.kati.net)〉.

## 부록: 브라질 농업관련 기관 및 조직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od(MAPA)

The National Food Supply Company(CONAB)

The Company of Storehouse and Grain Elevators of State of Minas  
Gerais(CASEMG)

The Central Food Supply Agency of the State of Minas Gerais(CEASA/MG)

The Ministry of Agrarian Development(MDA)

The 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and Combat Against Hunger(MDS)

The National System of Rural Credit(SNCR)

The National Council for Food and Nutrition Security(CONSEA)

The National Confederation of Agriculture(CNA)

The National Confederation of Agricultural Workers(CONTAG)

Organization of Brazilian Co-operatives(OCB)

Brazilian Association of Producers and Exporters of Poultry Meat(ABEF)

Brazilian Association of Beef Exporters(ABIEC)

Brazilian Association of Vegetable Oil Industries(ABIOVE)

Brazilian Coffee Industry Association(ABIC)

Brazilian Pork Industry and Exporter Association(ABIPECS)

Brazilian Seed Producers Association(ABRASEM)

Brazilian Association of Citrus Exporters(ABECITRUS)

Sao Paulo Sugarcane Agro-industry Union(UNICA)

Brazilian Association of Milk Producers(Leite Brazil)

### 해외농업 시리즈 3 브라질의 농업과 무역 동향

---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07. 6  
발 행 2007. 6  
발행인 최정섭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전화 02-3299-4000 <http://www.krei.re.kr>  
인쇄처 문 원 사  
전화 739-3911~5

---

ISBN 978-89-6013-043-2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